

명당의 다중음택터 구성에 따른 발복특성의 공학적인 접근

Engineering Approaches of Characteristics for a Favorable Change in Fortune with the Construction of Multiple Tombs for the Propitious Sites

김성원*

요 지

본 연구에서는 1혈장 2음택터의 구성이 발복특성에 미치는 공학적인 접근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혈장에서는 하나의 음택터를 조성하여 왔다. 그러나 특반급에 해당하는 몇몇의 명당들은 2개의 음택터를 조성한 경우를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광산김씨 허주 김반대감의 음택터의 경우 특반급에 해당하는 명당으로 1혈장에 2음택터가 구성되어 있다. 본 허주 김반대감 음택터의 공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다중음택터의 발복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다중음택터, 김반대감, 풍수지리, 공학적인 접근

1. 서 론

풍수 (Feng Shui)의 본질은 생기 (生氣)와 감응 (感應)이다. 이것은 고대 중국지리설, 풍수설의 본원인 『청오경 (靑烏經)』 및 『금낭경 (錦囊經)』의 두 경전에서 확인되었다. 즉 사람이 늙어 죽는 것은 가화합체 (假化合體)인 형태가 분리되어 화합이전의 진체 (眞體)로 돌아가는 것이다. 진체는 정신과 빠인데 정신은 우주의 정령계로 들어가고, 빠는 뿌리 즉 땅으로 돌아간다. 이 땅으로 돌아간 빠가 길기 (吉氣)에 감응하면 그 자손에게 행복을 미친다. 그것은 마치 동쪽산에 불꽃이 나오면 서쪽산에 구름이 이는 것과 같은 동기상응 (同氣相應)과 친자감응 (親子感應)이 풍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곽정진, 2007; 김성원, 2011a, b, c, d; 무라야마 지준/최길성, 1990; 유철준, 2010; 장용득, 1976; 지중학, 2010; 지창룡, 2005; 최창조, 1992, 1996). 본 연구에서는 광산김씨 허주 김반대감의 음택터에 대한 다중음택터의 구성에 따른 발복론의 공학적인 접근을 검증하고자 한다.

2. 광산김씨 허주 김반대감 음택터

조선시대에 광산김씨는 명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문과 265명, 무과 7명을 포함하여 총 389명의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여기에 정승 5명, 대제학 7명, 청백리 4명, 왕비 1명이 나왔는데, 특히 대제학 7명은 광산김씨를 더욱 빛나게 한 사계 김장생 대감의 자손이다. 대제학의 품계는 판서와 동등한 정2품이지만 “열 정승이 한명의 대제학만 못하다” 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성리학을 숭배한 문치주의가 정치적 이념인 조선시대에서는 선비 중에서 최고의 영예로운 벼슬로서 정승·판서보다 높이 우대하였다. 조선시대에 5명 이상의 대제학을 배출한 가문을 살펴보면 전주이씨, 연안이씨, 광산김씨 가문이 7명, 달성서씨, 안동김씨, 의령남씨 가문이 6명, 덕수이씨 가문이 5명에 해당된다. 특이한 것은 연안이씨 중에서도 저현 이석형대감의 후손에서만 3대 대제학을 비롯하여 7명의 대제학이 나왔으며, 광산김씨는 사계 김장생대감의 아홉명의 아들 중에서 오직 셋째인 허주 김반대감의 후손에서만 3대 대제학을 비롯하여 7명의 대제학이 배출되었다. 전주이씨는 왕족임을 고려하면 저현 이석형대감과 허주 김반대감의 두 가문이 조선조 최고의 명문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정희원, 공학박사, 수자원개발기술사, 동양대학교 철도토목학과 부교수 ; E-mail : swkim1968@dyu.ac.kr

허주 김반대감의 부친은 사계 김장생대감이고, 신독재 김집대감의 아우이다. 송익필의 문인으로 1605년(선조 38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의 거제유생이 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때 인조를 강화로 호송하고, 병자호란때 남한산성으로 호종하여 왕에게 장병을 독려하도록 건의하였다. 대사성, 예조참판, 대사헌, 대사간, 이조참판 등 요직을 겸하였으며, 사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광산김씨 대종회). 다음 그림 1은 사계 김장생대감 -허주 김반대감 후손의 족보를 나타낸 것이다.

3. 허주 김반대감 음택터의 정량적인 분석

음택풍수의 핵심은 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무리 사신사의 형국이 최상이라도 혈이 진혈이 아닌 경우에는 허화(虛華)에 해당된다. 또한 조선시대의 경우 음택터의 구성은 보통 1혈장 1음택터를 구성하고 있다. 다음 표 1은 국반급 명당에 해당되는 1혈장 1음택터를 나타내고 있으며, 표 2는 특반급 명당에 해당하는 1혈장 2음택터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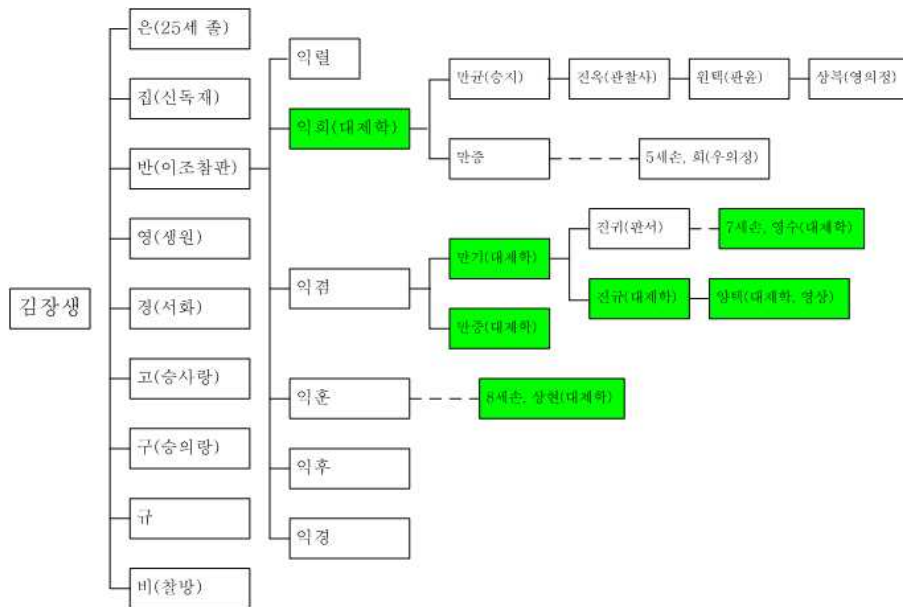


그림 1 김장생-김반 후손 (참고 : 지종학 풍수지리연구소)

표 1. 국반급의 1혈장 1음택터 예시

인물	본관	위치	등급	정량적인 평가
정사	동래정씨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리	국반급명당	144.6
권씨할머니 (김인백 처)	안동권씨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국반급명당	129.0
성인보	창녕성씨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국반급명당	125.0
이윤경	한산이씨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국반급명당	122.0

표 2. 특반급의 1혈장 2음택터 예시

인물	본관	위치	등급	정량적인 평가
유삼재	기계유씨	경상북도 포항시 기계면	특반급명당	155.4
김반	광산김씨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특반급명당	165.0
송순년	은진송씨	대전광역시 동구 사성동	특반급명당	160.0

그러나 적지 않은 대명당에서 1혈장 2음택터를 형성하고 있으나, 보통 부부로서 2음택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부자관계의 2음택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자식과의 관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음택터의 예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허주 김반대감의 음택터는 언급한 경우를 모두 나타내고 있으며, 공학적인 발복론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인의 관점에 의하면 허주 김반대감 음택터의 경우 혈장이 가로방향 (좌향방향) 49.0m, 세로방향 49.0m에 해당되며 형국은 봉황포란형 (鳳凰抱卵形)을 나타내고 있다. 박인태 (2008)에 의하면 봉황은 매우 상스러운 새인 만큼 대통령이 아니면 봉황 무늬를 할 수가 없다. 풍수지리에서도 봉황에 관련된 혈은 제왕지라라는 뜻이므로 용혈도 상격이고 국세가 크다. 봉황은 혈의 발복이 매우 커서 성인, 현인, 귀인을 비롯하여 제왕, 왕후장상이 배출된다. 학문과 문장이 출중하고 인품이 훌륭하여 따르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부와 귀는 저절로 들어오는 형국이다. 봉황의 가슴 및 날개안쪽에 혈이 있고 안산은 알이 있다. 오동나무, 대나무 및 구름과 같은 사격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조성된 음택터의 상부는 허주 김반대감의 셋째아들인 김익겸대감의 음택터, 하부는 허주 김반대감의 음택터가 구성되어 있다. 역장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셋째아들 김익겸대감이 일찍 자결 (1615-1637) 하여 상부에 음택터를 구성하였으며, 부친인 허주 김반대감이 1640년에 돌아가신 이후에 하부에 음택터를 구성하게 되었다. 김반대감의 우측에는 장남인 김익렬대감의 음택터가 구성되어 있다. 다음 Photo 1(a)-(b)는 허주 김반대감 다중음택터의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본인이 개발한 “음택터의 정량적인 평가기준 (Ver. 1.5, 2009/06)” Sheet을 이용하여 허주 김반대감 다중음택터의 정량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인이 설정한 기준은 총 200점 만점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청룡, 백호, 조산, 안산, 현무, 혈장, 수구 및 귀사격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 본인의 경우 혈장이 90점의 배점으로 전체 점수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본인의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허주 김반대감 다중음택터의 경우 200만점에 165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반급 명당”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표 2 참조). 또한 허주 김반대감 다중음택터의 좌향은 “임좌병향 (壬坐丙向)”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행으로 판단하면 수국 (水局)이다.



Photo 1(a) 허주 김반대감 음택터 : 입수처



Photo 1(b) 허주 김반대감 음택터 : 봉분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광산김씨 허주 김반대감 다중음택터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허주 김반대감 다중음택터에서는 1혈장 2음택터를 구성하였으며, 공학적인 접근법에 의하여 다중음택터의 발복론이 설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허주 김반대감의 경우에는 셋째아들인 김익겸대감과 1혈장 2음택터를 구성하고 있고, 김익겸대감의 후손에서만 5명의 대제학을 배출한 것을 고려하면 1혈장 2음택터의 발복론이 설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혈장의 경우 다중음택터의 조성이 발복론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공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광정진 (2007), 풍수지리 기초이론, 한국명당보존연구회 강좌노트.
2. 광산김씨 대종회 <http://www.kwangsankim.or.kr>
3. 김성원 (2011a), 동래정씨 정사대감 음택터의 환경풍수학적 검토, **2011년 한국습지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한국습지학회, pp. 133-136.
4. 김성원 (2011b), 광주이씨 이당 대감 음택터는 조선시대 8대 명당 중 하나일까?, **2011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한국수자원학회, pp. 1-4.
5. 김성원 (2011c), 윤신달 장군 음택터의 공학적인 분석을 통한 발복론의 검증, **2011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한국수자원학회, pp. 1-4.
6. 김성원 (2011d), 미래 대형 수공구조물 건설을 고려한 음택명당의 조성, **2011년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대한토목학회, pp. 1760-1763.
7. 무라야마 지준 지음/ 최길성 옮김 (1990), 조선의 풍수, 민음사.
8. 박인태 (2008), 풍수사전, 형설출판사.
9. 유철준 (2010), 실전풍수이론, 명문풍수지리연구원 강좌노트.
10. 장용득 (1976), 명당론전집 -하남의 비결-, 에밀레미술관.
11. 지중학 (2010), 풍수지리 형세론, 다사랑.
12. 지중학 (2010), 지중학 풍수지리연구소, <http://www.ipungsu.com/>
13. 지창룡 (2005), 한국지리총람: 명당찾아 삼천리, 명문당.
14. 최창조 (1992), “풍수사상에서의 물” 대한건축학회지, 제 36권, 제 2호, pp. 27-31.
15. 최창조 (1996),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